<2023년 CEO 신년사>

존경하는 KAC공항서비스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신 본사 및 사업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사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노동조합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회사가 설립된 지 햇수로 6년째 되는 해입니다.
기존의 익숙함에 의존하지 말고 '과거의 선'을 넘어 우리 회사의 경영목표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본원적인 고민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변화에 포인트를 잘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2023년 올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입니다. 매번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만큼 우리가 결코 방심하면 안되는 것이 바로 사업장 내 안전입니다. 올해도 '안전사고 발생 ZERO'를 위해 모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본사 업무에 있어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각 사업소에서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무엇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업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좋은 성과를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기억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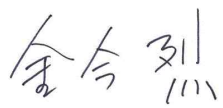
셋째, 고객 우선입니다. 결국 우리의 업무를 통해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아닙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이자 국민입니다. '고객 우선'은 단순히 운영직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 및 직군에 모두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원활한 공항운영과 고객 만족에 있음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는 노사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생 발전할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본사 및 사업소 협력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신뢰와 협력으로 안전한 공항운영과 우수한 공항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로 도약하는 계묘년, 직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 2.

KAC공항서비스(주) 사장 김금렬